

동화서사의 영상화 : 『아멜리에』 읽기(2)

- 『신데렐라』와 비교를 중심으로 -



3. 『아멜리에』의 주제 구성

3.1.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는 물, 그 상징성

3.2.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김 종 기

3.1.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는 물, 그 상징성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니노를 보고 아멜리는 물이 되어 내려앉는다. 동화 신데렐라가 구성하는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은유. 2

3.1.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는 물, 그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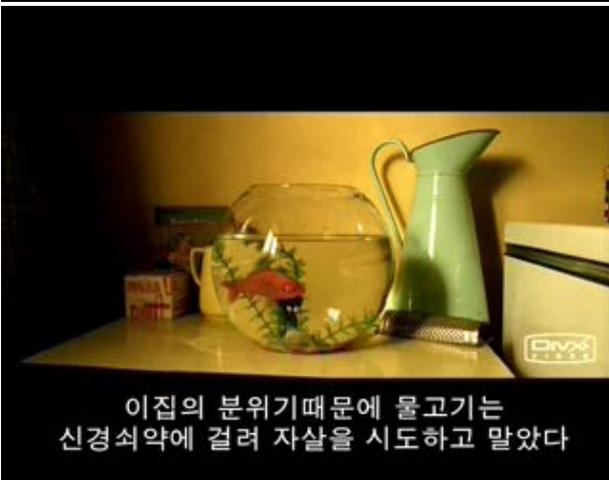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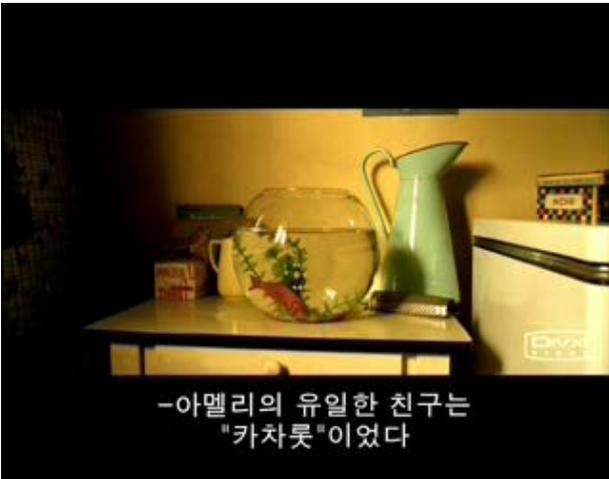
뒤파이엘이 모사하는 그림 속의 물잔을 든 소녀가 아멜리임을 암시. 아멜리와 그림 속 소녀의 물잔을 든 모습이 유사하다. 화면은 딥 포커스로 이를 강조한다.

3.1.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는 물, 그 상징성



'아멜리 = 물 = 「물 잔을 든 소녀」'임을 대사가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아멜리는 현실의 남자, 니노를 뒤파이엘에게 고백한다.

3.1.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는 물, 그 상징성



어항에 갇힌 물 : 금붕어와 더불어 아멜리의 닫힌 세계를 암시

어린 아멜리 얼굴 CU와 표정 : 넓은 세계를 동경

서사 전체에 '아멜리 = 물'의 은유는 중층적으로 직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는 물, 그 상징성



아멜리 **뒤로** 떨어지는 물[조안각 촬영] : 영상의 깊이를 매우 강조 [영상의 심도 차원]
운하에 갇힌 잔잔한 물 : 영상의 평면성을 매우 강조 [영상의 지리적 차원]
카메라 : 하나의 쇼트 속에서 수직축에서 수평축으로 서서히 이동
→ 영상의 깊이와 평면성을 서서히 그리고 뚜렷이 대비시키는 효과

3.1.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는 물, 그 상징성



..콩주머니에
손집어넣기..



..딱딱하게 굳은 파이깨기..

아멜리 **뒤로** 떨어지는 물 : 아멜리의 욕망을 상징
운하 가득한 초록의 넓은 물 : 아멜리가 만날 넓은 세상을 암시
이러한 대비는 초록색의 물과 붉은 색의 옷 색깔의 대비로 드러난다.
물수제비 뜨기는 아멜리의 다른 취미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3.1.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는 물, 그 상징성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 :

운하에 '갇힌 물' 과 '떨어지는 물'의 선명한 대비

→ 금붕어의 방생과 동일한 장면 구성

→ '아멜리 = 물 = 금붕어/어항 = 갇힌 물 = 닫힌 세계'

↔ 운하의 넓은 물 = 앞으로 만날 넓은 세상

↔ 떨어지는 물 = 앞으로 만날 행복한/역동적인 세상

어린 아멜리 = 어항, 운하라는 공간에 갇힌 물

운하의 물 = 갇힌 물, 고요한 물, 잠자는 물

물 = 아멜리의 내면적 무의식의 표현

아멜리의 다른 취미: (곡식 자루, 파이의) 조용한, 딱딱한 표면 깨트리기

물수제비[돌]의 상징 : 잠자는 물, 갇힌 물과 같은 자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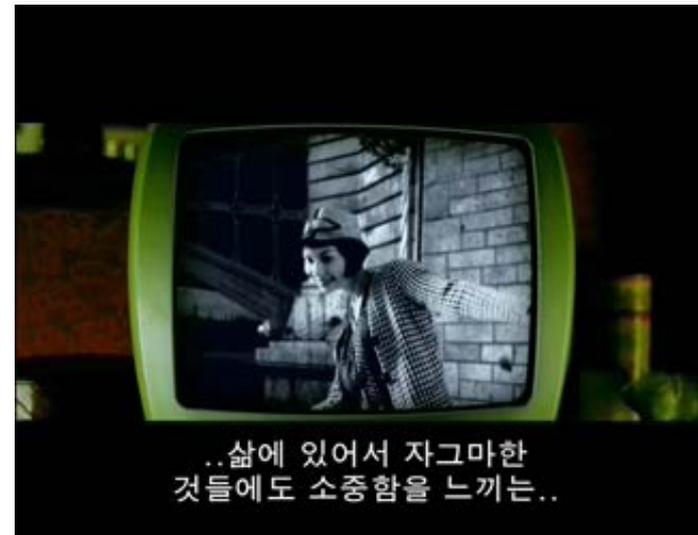
자신의 닫힌 삶을 깨운다는 의미

3.2.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



브레또도의 추억상자를 찾아주기 위하여 꼰리농의 부모를 만나러 들어가기 전. 물수제비돌 줍는 모습이 CU로, 주머니에 떨어지는 돌의 음향으로 강조되고 있다.
→ 물수제비 뜨는 돌 준비가 착한 일을 위한 전례의식이라면,
물수제비 뜨는 행위 자체는 착한 일을, 자신의 생각을 실천 하겠다는 상징이다.⁹

3.2.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



TV에 중계되는 어떤 유명한 수녀의 장례식 장면에서, 동일화된 아멜리 자신이 세계를 향한 온갖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물수제비를 뜨고 있다.
'물수제비 = 아멜리의 선행'이라는 의미가 아멜리의 환상을 통하여 드러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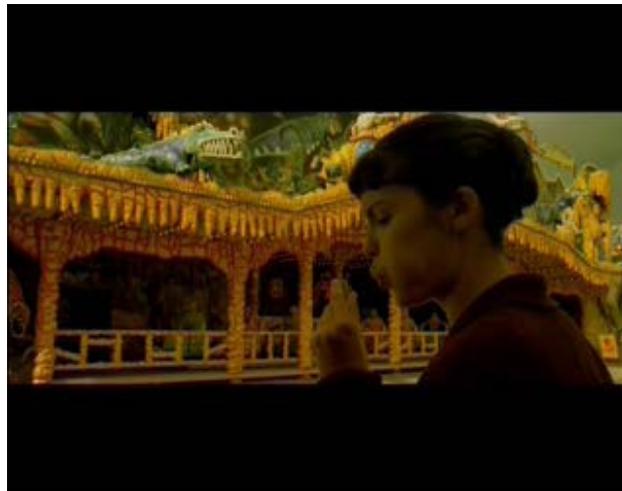
3.2.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



아버지를 깨우려던 돌을 물수제비 돌로 준비를 한다. 아버지를 위한 선행은 우선 인형을 훔쳐 세계일주를 시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가 '고독의 성'에서 벗어나 세계일주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영화서사의 결말로 이어진다.

➔ 물수제비 상징은 영화의 서사 전체에 걸쳐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2.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



-안녕하세요, 니노가 여기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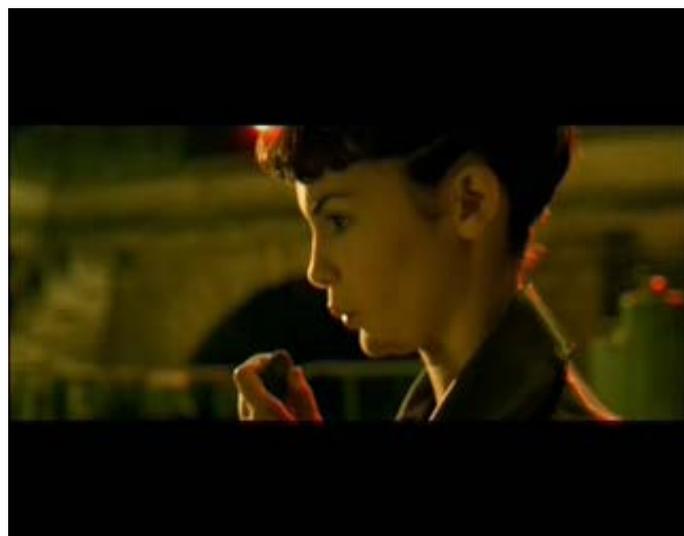
니노의 공간인 놀이 공원으로 찾아간 아멜리. 먼저 물수제비 돌을 줍는다.
이는 물수제비 뜨기는 아멜리의 내면 심리를 깨운다는 의미이다.
즉 '물수제비 뜨기 = 고인/갇힌 물을 깨움'이라면 이는 자신의 니노에 대한 무의식 [욕망/사랑]을 깨운다는 의미가 된다.

3.2.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



아멜리의 작업으로 조셉과 조제뜨는 사랑하게 되고, 그들은 화장실에서 사랑을 나눈다. 그 진동으로 술병 속의 흔들리는 술, 들뜨는 술이 클로즈업된다. 물수제비 뜨기가 고여있는 물 깨우기이며, 이는 사랑의 욕망을 깨운다는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



뒤파이엘과의 대화를 통해 아멜리는 이 영화 서사의 핵심인 니노와의 사랑을 결심하게 된다. 니노를 만나겠다는 아멜리의 어려운 결심이 관객을 향하여 다가오는 CU의 반복된 물수제비로 강조되고 있다. '물수제비 뜨기= 고인/갈힌 물을 깨움 = 아멜리[욕망/사랑]를 깨움'이라는 등식이 확인된다.

3.2.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



하늘에서부터 도시를
평화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아멜리는 갑자기
완벽한 화음이 들려오는걸 느꼈다



인생은 그녀에게 유리처럼
확연히 드러나 보였다

아멜리가 브레또도의 추억상자를 찾아 준 후, 세느 강이 배경으로 깔린다. 갇힌 물을 깨운 경우, 그 때의 물은 보다 넓은 물, 큰 물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물 / 물수제비 = 아멜리 자신의 내면 심리'라는 큰 틀에서 '물 = 아멜리', 더 구체적으로 '사랑' 혹은 '욕망(Id)'의 은유가 되고, 그 결과 물수제비 뜨기는 사랑 혹은 욕망(Id)을 일깨우리라는 자아(Ego)의 은유가 된다.

3.2.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



아멜리가 원하는 행위를 실천한 경우[= 갇힌 물을 깨운 경우], 그 때의 물은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이 된다. 흐르는 물의 익스트림 CU는 흐르는 물의 행복감을 의미. 핸드 헬드, 카메라 패닝 화면과 효과음악 : 물처럼 빠른 속도 → 리듬감, 역동성. 장님 할아버지의 행복감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의미는 '갇힌 물, 고인 물, 잠자는 물 = /불행감/', '깨어 흐르는 물 = /행복감/'이다.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쏟아지는 물로 표현된 아멜리는 니노를 간절히 원하는 내면 심리의 영상언어였다. 그런데 왜 아멜리는 자신을 찾아온 니노를 돌려 보냈을까? 그토록 원했던 왕자, 찾아온 왕자를 여러 차례 되돌려 보낸 신데렐라가 아닌가? ¹⁷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영화와 동화 서사구조의 공통점 :

-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찾아가지만,
- 여자 주인공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도망한다.
-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찾으러 오게 만들지만,
- 그 때 마다 피한다.
- 결국 여자 주인공의 흔적(매개물)을 통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되찾는다.

→ 왕자가 신데렐라를 되찾는 매개물 =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

→ 니노가 아멜리를 되찾는 매개물 = 『아멜리에』의 가족 앨범

→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 = 『아멜리에』의 가족 앨범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러 갈 때 변장(마차, 의상 등)하는 것처럼
공원으로 니노를 찾아가는 아멜리도 변장(색안경과 머리 수건)하였다.
유리구두를 남기고 도망한 신데렐라처럼 아멜리도 앨범을 남기고 도망한다.¹⁹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그런데 ... 왜 그랬을까? 그녀들은 ...

“신데렐라는 왜 왕자를 만나러 세 번씩이나 무도회에 갔으며,
왜 번번이 허겁지겁 도망쳐서 자신의 비천한 처지로 돌아왔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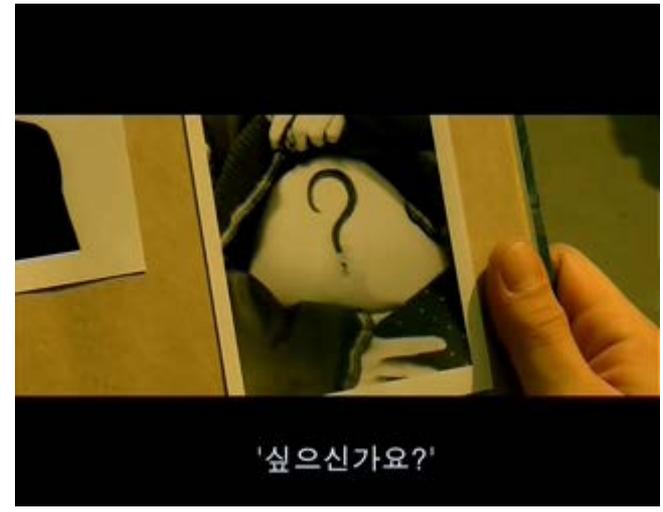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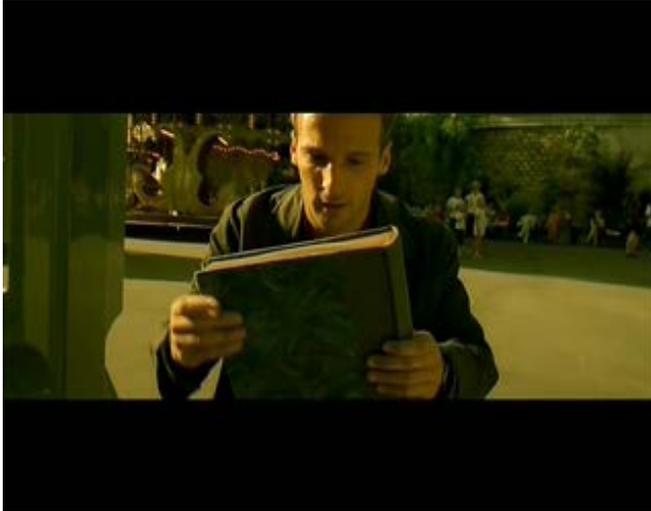
표면적인 층위에서, 신데렐라가 왕자를 피해 다니는 행위는
본래의 모습으로 선택 받고 싶지, 화려한 외모로 선택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연인이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를 원할 때에만 자신을 내어 주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

좀 더 심층적인 층위에서, 신데렐라가 반복해서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어린 소녀
의 이중적 감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내맡기고 싶으면서도 또 동시에 그렇
게 하기가 두려운 것이다. [...]

신데렐라는 참된 자신의 모습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행복을 획득할 마음
이 없다. 신데렐라는 마술에 의해 창조된 외모에 근거해서 선택 받기를 거부하며,
왕자가 누더기 옷차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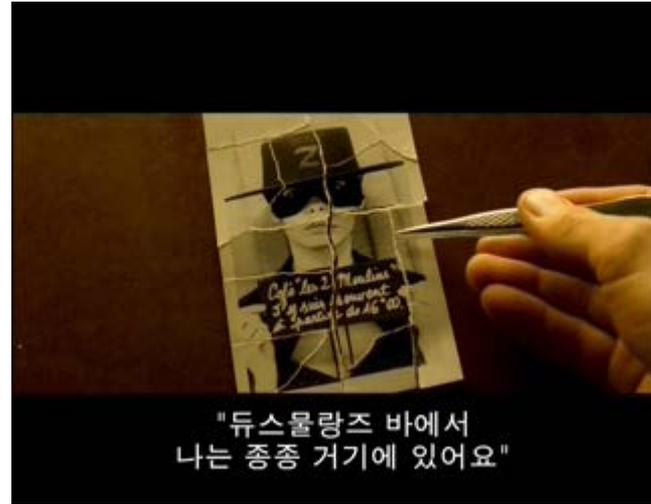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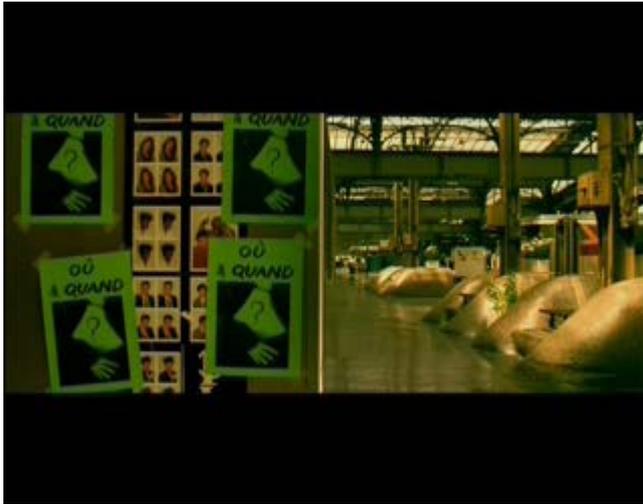
브르노 베델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제2권, 422-423, 429 쪽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유리구두가 왕자와 신데렐라의 매개물이라면, 니노와 아멜리의 매개물은 앨범이다. 아멜리는 앨범을 돌려준다. 그 안에는 자신의 배꼽 사진이 들어있다.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정신분석적 해석으로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한다면, 영화의 앨범도 생식기? 배꼽은 생식기와 유사한 여성의 신체 부위이다.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아멜리를 되찾기 위해 니노가 '언제? 어디서?'라는 문구와 함께 제작한 포스트의 사진은 배꼽 사진. 그도 아멜리의 여성성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데렐라가 왕자의 공간에 구두를 흘려 자신의 거처를 왕자에게 알렸다면, 아멜리도 니노의 공간에 사진을 흘려 자신의 거처를 니노에게 알린다.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유리구두 → 앨범/사진을 통한 성적 관계 설정 =
결혼반지 의식의 상징 ← 상대의 성을 바꾸어 가지기

지금 아멜리가 앨범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의 소유자는 니노

영화의 앨범은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에 함의된 '거세 불안'과 관련한
정신분석적 성의 의미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

이러한 성의 의미가 '가족 앨범' 속에 담겨있는 사진을 통한
성이라는 점에서 유리구두에 담긴 성의 가치를 그대로 담보

이러한 해석은

뒤파이엘 할아버지의 역할을

신데렐라의 아버지의 역할과 비교해 볼 때

서사 전체와 관련한 타당성을 확보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그것은 또한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중적인 감정이기도 하다.
[...]

왕자 또한 신데렐라가 정서적으로 오이디푸스적인 관계로 아버지에 매여 있는 한 신데렐라를 차지할 수 없음을 아는 듯이, 스스로 신데렐라를 추적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버지가 먼저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딸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딸에게 보여야만, 딸 역시 이성과의 사랑의 대상을 미숙한 대상 (아버지)으로부터 성숙한 대상(왕자)으로 기꺼이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신데렐라가 숨은 장소들을 파괴하는 행위, 즉 비둘기장과 배나무를 베어 버리는 행위는, 자기의 딸을 기꺼이 왕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브르노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제2권, 423 쪽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고깔모자 인형 = 아버지의 상징. 영화는 아버지와 관계된 소녀의 이러한 심리를 은유적 영상언어로 암시한다. 아버지를 만나는 대신 고깔모자 인형을 훔쳐 도망 나오고, 사진부스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끊을 때 그녀는 니노의 공간인 사진부스에서 잠든 것이다. 나중 인형을 통해 아버지를 '고독의 성'에서 벗어나게 만들 때, 진정으로 니노를 만나는 서사와 연결된다.

3.3. 아멜리의 심리 : 이중적 감정

뒤파이엘 할아버지 : 아멜리에게 니노를 만날 것을 권유,
비디오테이프 등을 보내어 설득

→ 아멜리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끊어 놓겠다는 의미

→ 신데렐라의 아버지 = 뒤파이엘 할아버지

→ 뒤파이엘 할아버지 = 아멜리 아버지의 변형
= 동화 속의 아버지
= 고깔모자 인형으로 상징

이처럼 영화 『아멜리에』의 주제 구성에 있어 물과 그 상징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물과 관련된 물수제비의 서사적, 심리적 의미는 결국 아멜리의 니노의 사랑에 대한 욕망으로 연결된다. 결국 아멜리의 이중적 감정이라는 심리는 신데렐라 서사와 비교할 때 그 이유와 메커니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